

## 한·일 현대담의 비교 연구

김화경\*

- I. 머리말
- II. 일본의 요괴 이야기
- III. 한국의 귀신 이야기
- IV. 맺음말

### 【요약】

본 논문은 근래에 만들어진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한국과 일본의 귀신이나 요괴(妖怪) 이야기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두 나라의 민속문화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구명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이렇게 현대담을 고찰하려고 한 이유는 지금까지 한국의 구비문학계에 있어서는 현대담(現代譚)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하고 있는 한일 두 나라의 민속 현상에 대한 비교 연구에 관심을 보이는 연구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목적 아래서 수행된 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현대담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의 심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민속사회가 공통되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는 요소도 가지고 있지만, 변별되는 요소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를테면 한국과 일본의 민속문화가 다 같이 비일상적인 세계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되는 요소에 해당된다. 하지만 전자에서는 비일상적인 세계가 지하에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데 비해, 후자에서는 그런 세계가 현실 속에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명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연구를 진척시켜 나아간다면 한국과 일본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지금도 우리는 서로 간에 가깝고도 먼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상대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측면에서 상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이런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둔다.

## I. 머리말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이야기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이야기>라고 하는 용어는 단순한 정보의 제공이나 소문(所聞), 사정하는 말 등과 같은 단편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관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잡아 하는 말이나 글”<sup>1)</sup>을 의미하는 것이다.

1) 한국어의 <이야기>란 말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 ① 어떤 사물 또는 현상에 관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잡아 하는 말이나 글.
- ② 지난 일이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말.
- ③ 어떤 사실이나, 또는 있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꾸며서 재미있게 늘어놓는 말.
- ④ 소문(所聞), 평판(評判).
- ⑤ 사정하는 말.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가 만들어진다고 하여, 현대사회의 모든 사건이나 아이템들이 전부 다 이야기의 소재(素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에 창출되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기이한 일과 이상한 소문(奇事異聞)에 의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사실은 무엇인가 이상한 일이라든가 재미있는 것들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호기심에서 이야기가 발생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창출되는 이야기에는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상상력과 생활 감정의 여러 가지 존재 양태, 나아가서는 그들의 사회 상황과 신앙 체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다.<sup>2)</sup>

한국의 구비문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현대의 이야기에 대해 그다지 많은 관심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회에 현대담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지금도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져 사람들의 입에 회자(膾炙)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또한 많은 이야기들이 창출되어 문헌 속에 정착되었던 것이다.

특히 조선시대에 발달한 <야담(野談)><sup>3)</sup>은 당시에 풍미하던 이야기의 일종으로 한국의 구비문학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원래 <야(野)>라고 하는 것은 <여(輿)>나 <조(朝)>에 대립되는 말이기 때문에, 야담이란 지배계층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져 전승되던 이야기의 한 장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야담에는 실제로 있었던 실화(實話)나 소화(笑話), 괴담(怪談), 음담패설(淫談悖說) 등 잡다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sup>4)</sup> 장르의 설정을 어렵게 만들

⑥ 소설(小說).

한국어사전편찬위원회, 『한국어대사전』(서울, 현문사, 1976), 1316쪽.

2) 宮田登, 『世間話研究の意義』 『民話の世界』(東京, 有精堂, 1990), 178쪽.

3) <야담(野談)>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자어(漢字語)라는 것을 밝혀둔다.

4) 이마무라 도모(今村鞠)는 한국의 야담에는 일본의 익살스러운 이야기와 괴담, 외설담(猥褻譚), 신화, 전설, 동화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고 있다. 그렇지만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고담(古談)>, 곧 <옛날이야기>와 구별하고 있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로부터 구전되어 오던 이야기를 옛날이야기(古談)로 인식하였었는데 비해, 당시의 사회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를 야담(野談)으로서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sup>5)</sup> 만약에 이런 추정이 타당성을 가진다고 한다면,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오늘날의 현대담에 해당되는 야담에 대해 명확한 장르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야담에 대한 연구 성과가 만족할 만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거기에다 그 연구도 소설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라든지 문학성을 해명하는 것 등, 지극히 제한된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이라는 전통사회에 있어서 이들 야담이 가졌던 의의와 기능, 여기에 내재된 민중들의 의식구조와 신앙체계 등이 밝혀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현대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장르의 명칭마저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신동훈(申東暉)이 경험담이나 PC통신의 유머 방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현대 구비문학> 또는 <현대 이야기>라고 지칭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표시해 오고 있다.<sup>6)</sup> 그렇지만 그가 연구의 대상으로 한 것은 이야기

森川清人, 『朝鮮野談隨筆傳説』(서울, 日-カル社, 1944), 1쪽.

5) 김화경, 「야담의 장르적 성격에 관한 고찰」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1)』 (서울, 보고사, 2001), 219-222쪽.

6) 신동훈이 발표한 일련의 논고(論考)는 다음과 같다. 「현대구비문학과 전파매체」 『구비문학연구(3)』 (서울, 한국구비문학회, 1996), 143-175쪽.

「경험담의 문학적 성격에 대한 고찰」 『구비문학연구(4)』 (서울, 한국구비문학회, 1997), 157-182쪽.

「PC통신 유머방을 통해 본 현대 이야기 문화의 단면」 『민족문학사연구(13)』 (서울, 민족문학사연구소, 1998), 389-428쪽.

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민중들 사이에서 전승되어야 한다는 설화적 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들과는 구분된다고 하겠다.

한편 일본의 시마무라 다카노리(島村恭則)는 한국의 현대담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들을 수집하여, 여기에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간화(世間話)>라는 명칭을 붙여 한국과 일본 자료들을 비교하였다.<sup>7)</sup> 그리고 김화경(金和經)은 「한일 세간화의 비교연구」<sup>8)</sup>란 논문을 일본에서 발표하여, 이 부류의 이야기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또 김종대(金宗大)는 『한국의 학교괴담』<sup>9)</sup>이란 저서를 통해서 이 부류의 이야기들에 대해 민속학적 의미를 부여하여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서 그가 사용한 <괴담(怪談)>이라는 단어는 괴이(怪異)한 이야기, 곧 이상야릇한 이야기라는 사전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sup>10)</sup>

그런데 괴담이란 용어는 다른 이야기들과의 구분을 모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모든 설화들이 다 얼마간의 괴기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sup>11)</sup> 또 일본에서 쓰이고 있는 <세간화>

7) 島村恭則, 「都市傳説の日韓比較」 『比較民俗學研究(12)』(筑波, 筑波大學 歴史人類學研究科, 1995)와 1996년에 일본 민속학회에서 발표한 「現代韓國社會と世間話」라는 논문이 있다.

8) 金和經, 「韓日世間話の比較研究」 『歴史と民俗(15)』 (東京, 平凡社, 1999), 69-106쪽.

9) 김종대, 『한국의 학교괴담』 (서울, 다른 세상, 2002) 참조.

10)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괴담(怪談)>이란 단어는 “둔갑을 한 것에 관한 이야기, 요괴·유령·귀신·여우·너구리 등에 대해서 미신적인 구비·전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新村出 編, 『廣辭苑』 (東京, 岩波書店, 1981), 391쪽.

11) S. Thompson은 설화의 모티프에 대하여, “모티프란 전승을 지속시키게 하는 힘을 가진, 설화 속의 최소의 요소인 것이다. 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진귀하면서도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정의한 바 있다. 여기에서 진귀하면서도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어떤 것이 바로 괴기적인 요소가 아닐까 한다.

S. Thompson, *The Folktale*, (New York, The Dryden Press, 1946), 415쪽.

란 용어도 한국에서는 그다지 통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자료를 <현대담(現代譚)><sup>12)</sup>이라고 명명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한국과 일본의 현대담들을 비교함으로써, 두 나라의 민속문화가 지니고 있는 동질성과 이질성을 구명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두 나라의 요괴와 귀신에 얽힌 이야기들을 고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것들은 인간이 창출한 문화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그 집단의 신앙관(信仰觀)이나 세계관(世界觀)과 같은 것이 작용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민속문화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고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요괴나 귀신에 관한 연구는 일본이 한국보다 더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본의 자료들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한국의 자료들을 고찰하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도깨비를 고찰의 대상으로 한 것은 이것이 한국 특유의 귀신이면서도, 일본의 요괴에 대응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 II. 일본의 요괴 이야기

인간들은 원래 공포심이나 외경심(畏敬心)과 같은 감정을 가지

12) 필자는 1995년에 전라북도 무주군(茂朱郡) 일대에서 조사한 자료를 <항담(巷譚)>이란 명칭으로 학계에 보고한 바 있으나, 이것은 현대사회의 이야기를 지칭하는 학술적인 용어로는 적합하지 못한 것 같아 합당한 용어가 발견될 때까지 당분간 <현대담>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본고에서 고찰의 대상으로 하는 요괴(妖怪)나 도깨비에 얽힌 이야기는 이러한 <현대담>의 하위 장르의 하나라는 것을 밝혀둔다.  
김화경, 「학술답사보고」, 『국어국문학연구』23집(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5), 174-176쪽.

고 있다. 여기에 착각이라든가 환각과 같은 경험이 더해지고, 나아가서 이것들이 공상과 상상에 의해 구체적인 이미지로 바뀌어 하나의 민속문화가 형성되어 간다.<sup>13)</sup> 이렇게 만들어진 일본의 민속문화 속에는 유령과 요괴(妖怪)<sup>14)</sup>가 있는데, 이것들과 관련을 가지는 많은 현대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학교의 요괴담(妖怪談)이다.

## [자료 1]

「어떤 여학생이 물건을 놓고 온 것이 생각나 저녁 늦게 학교에 갔다. 괴괴히 잠잠해진 체육관에 발을 내딛자, 저쪽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의 그림자가 같은 것이 보였다. 숨을 죽이고 가만히 주시하고 있었더니, 사람의 그림자가 “테구르르 테구르르” 둔탁한 소리를 내면서 다가왔다. 공포에 떨고 있던 여학생 바로 옆까지 왔는데, 너털너털한 흰옷을 걸치고 머리를 산발(散髮)한 여자가 시체가 놓인 왜건(waggon)을 밀면서 걸어온 것이었다. 비명을 지르고 도망을 치자, 여자가 뒤쫓아 왔다. 여학생은 재빨리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 가장 안쪽에 있는 칸으로 몸을 숨겼다.

이윽고 화장실 입구 쪽에서 가장 가까운 칸의 문을 “똑똑.” 노크하는 소리, 이어서 “끼이익.”하는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고, “여기에는 어업-서어.”라는 여자의 기분 나쁜 목소리가 났다.

여자는 순서대로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드디어 여학생이

13) 宮田登, 『妖怪の民俗學』(東京, 岩波書店, 1985), 18쪽.

14)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國男)은 요괴와 유령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으나, 이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1. 요괴는 나타나는 장소가 대개 정해져 있는 데 반해, 유령은 원한(怨恨)과 같은 일정한 의지를 가지고 저쪽으로부터 다가오는 것이므로 어디에를 가더라도 피할 수가 없다.
2. 요괴는 특정한 상대를 고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 무엇인가 교섭을 하려고 하는 데 반해, 유령으로부터는 개인적인 인과관계에 의해 재앙을 받는다고 하는 의식을 수반하고 있다.
3. 유령은 대부분이 밤 2시에서 2시 30분 사이에 출현하는 데 비해, 요괴는 저녁 무렵이나 새벽에 나타난다.

宮田登, 앞의 책, 14-15쪽에서 재인용.

숨어있는 바로 옆 칸의 문이 열렸다. “다음이다. 어떻게 하지.” 여학생은 떨면서 웅크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5분, 10분이 지나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자, 비로소 여학생은 흠칫흠칫 일어서며 ‘마지막 화장실은 포기한 거야.’ 라고 마음 속으로 중얼거렸다. 살았다는 안도감에 “휴우-.”하고 얼굴을 들자, 문 위에서 흰옷을 입은 여자의 무서운 얼굴이 가만히 안을 내려다보고 있었다.<sup>15)</sup>

이 자료에서는 여학교의 체육관에서 나타난 유령이 여학생을 화장실까지 따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에서 체육관이나 화장실은 교실과 떨어진 곳에 세워진 건물들이란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수세식(水洗式)이 아닌, 재래의 화장실은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안채에서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두운 밤에 화장실을 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는가 한다. 이와 같은 장소에 유령이나 요괴가 등장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근대의 서양식 교육을 위해서 학교에 화장실이 지어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화장실은 불안이 붙어 다니는 어두운 인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화장실은 건물들 가운데에서도 북쪽에 위치하여,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으스스한 한기(寒氣)를 느끼는 장소였으므로 비일상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곳이었다.<sup>16)</sup>

게다가 한국도 그러했지만, 일본에 있어서도 처음에 학교가 세워졌던 장소가 대개 마을에서 얼마 정도 떨어진 외진 곳들이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 곧 문화의 영역에서 거리를 두었다는 것은 자연의 상태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인간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연의 상태는 사람들이 창조한 문화의 혜택이 미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유령이나 요괴와 같은 존재들

15) 常光徹, 이현정 역, 『일본의 도시괴담』 (서울, 다른 세상, 2002), 18-19쪽.

16) 常光徹, 『學校の怪談』 (東京, ミネルヴァ書房, 1994), 17-18쪽.



이 출몰하기에 적절한 공간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괴가 출현하는 곳은 학교만이 아니다.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인 집에도 요괴가 나타난다는 많은 괴담들이 이야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아무 집이나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낡아서 사람이 살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살인(殺人) 사건과 같은 것이 있었던, 특수한 집에 요괴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료 2]

「낡고 퇴색이 되어 귀신이 사는 곳과 같은, 어떤 집이 있었다. 그래서 그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였기 때문에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호기심이 많은 고등학생 몇 명이 거기에 들어가 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안에 들어갔던 학생들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나이를 먹은 노인이 되어서 나왔다고 한다。」<sup>17)</sup>

이 자료에서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집이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제시된 하나의 금기(禁忌)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이다. 그래서 주어진 금기는 깨어지게 되어 있다. 이 이야기에 있어서도 그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금기는 결국 지켜지지 않고 만다.

이처럼 부여된 금기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등장인물들이 그것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금지의 위반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代價)가 수반되기 마련이다. 위의 자료에서는 그 대가로 집에 들어갔던 고등학생들이 갑자기 나이를 먹은 노인으로 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집은 보통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짧은 시간 내에 노화(老化)가 촉진

17) 久保孝夫, 『高校生が語る不思議な話』(五所川原, 青森縣文藝協會出版部, 1997), 10쪽.

되는, 신비한 곳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집은 일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비일상적인 공간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인간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곳이므로, 요괴가 사는 집터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이러한 인식은 일본의 민속문화가 가지는 하나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민속문화에서는 이와 같은 비일상적인 공간이 지하의 세계에 있는 것으로 상정되어 왔다.<sup>18)</sup>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위의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공간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어찌 되었든, 이처럼 요괴가 출현하는 집에 얽힌 것으로는 <접시에 얽힌 집터 이야기>가 있다.

[자료 3]

「세이보(正保) 연간의 일이었을 것이다. 마쓰에번(松江藩)의 번사(藩士)였던 어떤 사람이 (중국의) 남경(南京)에서 생산된 접시 열 개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집의 안주인은 숙이 시켜면 여자였다. 안주인은 하녀를 미워하여 그 접시 열 개 중의 하나를 깨어 우물 속에 넣어 버린 다음, 하녀가 훔쳐갔다고 하면서 그녀를 호되게 질책하였다. 하녀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밝히지도 못한 채, 우물가의 나무에 목을 메달아 자살을 하고 말았다.

그로부터 밤마다 유령이 우물가에 나타나, “하나, 둘”이라고 하면서 슬픈 목소리로 접시를 헤아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홉까지는 이렇게 헤아렸으나, “열”은 헤아리지 못하고 “약”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오래도록 계속되자, 그 집은 이상하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 때문에 번사인 그 집 주인도 괴로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에 어떤 무사가 나타나서, 자기가 그 망령(亡靈)을 퇴치해 보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 집에 이르러, 우물가에 숨어서 망령을 기다

18) 경상북도 상주(尙州) 지역에 전해지는 오복동(五福洞) 전설과 같이 현실에서 유리된 이상향은 대개 지하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손진태, 『조선민족설화의 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1947), 55-60쪽.

렸다. 정말로 젊은 여자 망령이 나타나서, 전과 마찬가지로 접시를 헤아리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아홉까지 헤아렸을 때, 무사가 재빨리 “열” 하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여자의 망령은 사라졌고, 그 후로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집터는 마쓰히라(松平) 집안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한다.<sup>19)</sup>

이것은 시마네현(島根縣)의 마쓰에시(松江市) 일대에 전해지고 있는 <운슈(雲州)의 접시에 얽힌 집터 이야기>이다. 이런 괴담(怪談)은 에도 시대(江戸時代)부터 전해지는 것으로, <반슈(幡州: 하리마국(幡馬國)의 다른 이름: 인용자 주)의 접시에 연루된 집터 이야기>나 <반쵸(番町)의 접시에 얽힌 집터 이야기>와 같은 것들이 있다. 특히 전자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원령(怨靈)이 곡식에게 해를 주는 해충(害虫)이 되었다고 하여, 농경의례와 원령 신앙이 결부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 관심을 끈다.

이와 같은 괴담(怪談)들은 대대(代代)의 가보(家寶)로 전해지던 접시를 깨뜨린 하녀가 우물에 몸을 던져 죽고 난 다음부터, 매일 밤 우물 근처에 유령이 나타난다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우물가에 유령이 출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미야타 노보루(宮田登)는 “우물을 통해서 저승과 이승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우물은 저승과 이승의 입구가 된다고 하는 사유로부터, 망령이 출현하기 쉬운 곳이다.”<sup>20)</sup>라고 하여, 우물을 이승과 저승의 경계로 보았다.

이와 비슷한 사유는 한국에도 남아 있다. 제주도의 <차사 본풀이>에는 주인공인 강님이 행기뭇에 뛰어들어 저승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sup>21)</sup> 한국에서는 이처럼 연못이나 강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이룬다고 하는 신화적 사유의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

19) 宮田登, 앞의 책, 33-34쪽에서 재인용.

20) 宮田登, 앞의 책, 36쪽.

21) 현용준, 『제주도 신화』(서울, 서문당, 1977), 120쪽.

다.<sup>22)</sup> 이로 미루어 보아 한국에서는 강이나 연못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이룬다고 생각했는데 비해, 일본에서는 우물과 같은 것이 경계를 이룬다는 신화적 사유를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접시 때문에 자살한 하녀의 망령이 출몰한다고 하는 <접시에 얽힌 집터 이야기>는 일본어의 <사라찌(生地)>, 곧 <집을 지을 수 있는 빈터> 내지는 <집과 나무가 없는 빈터>라고 불리는 토지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일본어로 접시(皿)를 <사라>라고 하고 비어있는 땅도 <사라찌>라고 해서, 둘 다 <사라>라고 하는 같은 발음을 하는 것에서 생겨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일본에서 <사라찌>라고 하는 곳은 비어 있는 대지(垓地)로, 집터로서는 좋지 않은 장소로 인식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 집을 지으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료 3과 같은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sup>23)</sup>

여하간 이렇게 요괴가 출현하는 집의 이야기는 동물들이 살고 있는 집과 뒤얽히어 전해지는 전승의 하나이다. 원래 귀신이 나오는 집터란 재앙(災殃)이 가득 찬 토지에 세워진 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곳은 여러 가지 요괴들이 모여드는 공간으로 생각되고 있었다.<sup>24)</sup>

그런데 일본에서는 집터에 붙어있는 요괴가 반드시 재앙만을 가져오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 가운데에는 번영을 보증하여 주는 요괴도 있어 흥미를 자아낸다. 이러한 예로는 동북지방(東北地方)<sup>25)</sup>의 <집터 동자(座敷童子)><sup>26)</sup>를 들 수 있다.

22) 김화경, 「세경 본풀이의 신화학적 고찰」 『한국학보(23)』 (서울, 일지사, 1982), 63-71쪽.

23) 宮田登, 앞의 책, 34쪽.

24) 宮田登, 앞의 책, 60쪽.

25) 동북지방이란 일본 혼슈(本州)의 후쿠시마현(福島縣) 이북 지방을 가리키는 지리적 용어라는 것을 밝혀둔다.

26) 이와테현(岩手縣) 호쿠쵸 산지(北上山地)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속신

## [자료 4]

「우리들은 어렸을 때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화롯가에서 곤잘 집터 동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집터 동자란 어떤 모양이였는가 하면, 붉은 얼굴에 앞머리를 좌우로 부풀리어 정수리에서 묶고 끝은 뒤로 늘어뜨린 머리(垂髮)를 한, 대략 5·6세의 아이로, 지방의 부잣집이나 유서(由緒)가 있는 집의 안쪽 어딘가에 사는 것이라고 한다. 그 것이 있는 동안에는 집의 부유(富裕)와 번창이 계속되지만, 만약에 그 것이 없어지게 된다면 가운(家運)이 기울어질 전조(前兆)라고 한다.»<sup>27)</sup>

이것은 사사키 기젠(佐佐木喜善)이 1920년에 출판한 『오쿠슈(奥州)의 집터 동자 이야기』에서 저자 자신이 어렸을 때에 들은 기억을 정리한 것이다. 그는 나아가서 자기가 들은 집터 동자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집터 동자의 체구는 작고, 얼굴 색깔을 붉다.
2. 부유한 구가(舊家)에 있지만, 갑자기 부자가 된 집에는 있지 않다.
3. 만약에 집터 동자가 물러가는 일이 있다면, 그 집이 망할 전조이다.
4. 때때로 나와서 그 집의 사람들에게 즐겁게 장난을 거는 일이 있으나, 집사람 이 외의 눈에는 보이는 일이 없다고 한다.<sup>28)</sup>

집터 동자에 대한 사사키의 이러한 개념 규정이 있는 다음, 일본의 민속학계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습용(襲用)하고 있다.<sup>29)</sup> 일본의 동북 지방에서는 이 집터 동자가 있는 한, 그 집의 번영은 보

(俗信)으로, 오래된 집터에 때때로 출현하는, 그 집 운세의 수호령(守護靈)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동자의 모습을 한 정령을 말한다.

大塚民俗學會 編, 『日本民俗事典』(東京, 弘文堂, 1972), 287쪽.

27) 野村純一, 『日本の世間話』(東京, 東京書籍, 1995), 71쪽에서 재인용.

28) 野村純一, 앞의 책, 72쪽에서 재인용.

29) 山崎雅子, 『日本昔話事典』(東京, 弘文堂, 1977), 381쪽.

증된다고 하는 신앙이 있다. 요괴(妖怪)의 일종인 집터 동자는 베고 있는 베개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상(床)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집의 수호령(守護靈)으로 그 집의 부귀와 번영을 보증한다는 것이다.<sup>30)</sup>

이상과 같은 고찰을 통해서 현대담에 나타난 일본 사람들의 요괴에 대한 관념 체계(觀念體系)의 일단을 엿볼 수 있었다. 곧 요괴가 출현하는 장소로 가장 적합한 곳은 학교였다. 서구화의 시작과 함께 세워지기 시작한 학교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얼마간 떨어진 곳이었다. 이런 곳은 근대적인 건물이 들어서기는 하였으나, 아직 자연의 상태에 가까운 장소였다. 따라서 이렇게 자연에 가까운 곳에 요괴가 출현한다는 것은 요괴 역시 자연에 가까운 존재로 상정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요괴는 이러한 학교뿐만 아니라, 인간이 사는 문화의 영역에도 출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아무 집이나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낡아서 사람이 살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살인 사건과 같은 것이 있었던, 특수한 집에 요괴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집터에 붙어있는 요괴가 재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다. 재앙 대신에 그 집의 부귀와 번영을 보장하는 것도 있다. 이런 요괴의 대표적인 존재가 일본의 동북 지방에서 신앙되고 있는 집터 동자라는 것을 밝혔다.

### III. 한국의 귀신 이야기

위에서 일본의 요괴 이야기들을 고찰하였다. 그러면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귀신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학교의 현대담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30) 宮田登, 앞의 책, 63-64쪽.

## [자료 5]

「안양 모 초등학교는 저지대(低地帶)에 자리잡고 있어 새로 공사를 했는데, 그전까지는 장마철 수해가 극심해서 교실 안까지 물이 들어차고 재래식 화장실도 물이 넘치기 일쑤였다.

몇 해 전 수해(水害)에 어떤 아이가 이 화장실에 빠져 죽었는데, 그 맘때가 되면 그 아이의 귀신이 나타난다. 그래서 화장실에 갈 때는 노크를 필히 네 번 해야 한다고 하는 해결책도 함께 나돌았다.<sup>31)</sup>

이 현대담은 화장실과 관련되어 만들어진 초등학생들의 이야기이다. 이렇게 화장실에 얽힌 이야기에 대해, 김종대(金宗大)는 “기성세대(既成世代)가 알고 있는 것만큼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받지 못하는 듯하다. 가장 큰 이유는 화장실이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는 이야기가 생성되지 못했거나, 일본식 이야기가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sup>32)</sup>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가 재래식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화장실의 귀신이야기가 기성세대만큼 아이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고 하는 주변 여건의 변화 문제를 제기한 것은 상당한 타당성을 가진다. 하지만 일본식 이야기가 환영을 받지 못한 때문이라는 지적은 재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왜냐하면 현대담이 만들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학교 여건은 한일 간에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는 최근에 유행을 한 학교의 괴담들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 곧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걸쳐 일본에서 널리 유포되었던 것이 <입이 찢어진 여자 이야기><sup>33)</sup>였다. 그렇지만 이것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대신에

31) 김종대, 『한국의 학교괴담』 (서울, 다른 세상, 2002), 23쪽.

32) 김종대, 앞의 책, 23쪽.

33) 「큰 마스크를 한 여자가 하교(下校) 길의 아이 곁에 다가와서 갑자기 “저, 나 예뻐?”라고 묻는다. “미인입니다.”라고 대답하면 그녀는 천천히 마스크

한국의 학생들 사이에는 <시리즈> 계통의 이야기가 일대 유행을 하였다. <참새 시리즈>에서 시작하여 <식인종 시리즈>, <사오정 시리즈>, <쇠불암 시리즈>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귀신이 나타나는, 또 다른 곳으로는 빈집이 있다. 그래서 빈집에 얽힌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이야기를 소개하기로 한다.

[자료 6]

「(1) 서울에 사는 선비 이 창(李廟)은 집이 가난하여, 목사동(墨寺洞)의 후미진 곳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 집은 흉가(凶家)로 알려져 오랫동안 텅 비어있던 곳이었다.

그는 정말로 이 집이 흉가인가 어떤가를 알아보기 위해, 그의 형과 친척, 친구들과 함께 가서 깨끗이 청소를 하고 묵기로 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다락이 한 칸 있었다.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 신주(神主)와 빈 궤(櫃), 무현금(無絃琴), 해진 신발과 오래 전에 깎은 나무판 등이 있었다.

그 날 밤 이 창 일행이 술을 마시며 놀고 있는데, 그때 다락으로부터 잔치에서 떠드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다락의 창을 뚫고 휘둘러보았다. 그러자 다락 안에 서도 역시 칼로 창을 뚫고 밖으로 칼을 휘둘러대는 것이었다. 칼날에는 시퍼런 빛까지 감돌았다. 이 창 등은 날이 밝자 달아나 다시는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2) 남촌(南村)의 부동(部洞)에 또 다른 흉가가 있었다. 이 창(李廟)의 가족들은 갈 데가 없어 이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형제와 친구들과 같이 그 집에 들어갔더니, 황구(黃狗)와 흑구(黑狗) 두 마리가 마주 보며 대칭마루 양 귀퉁이에 누워 있었다.

---

에 손을 대고, “이래도?”라고 말하고 쫓는다. 마스크 아래에 나타난 것은 놀랍게도 귀까지 찢어진 귀신같은 입이다. 놀라 울면서 소리치며 달아나면, 뒤에서 칼을 치켜들고 뒤쫓아온다. 그녀는 발이 매우 빨라 도망쳐도 곧 잡히는데, “포마드, 포마드, 포마드”라고 세 번 복창하든가, 사탕을 주면 벗어날 수 있다.]

常光徹, 이현정 역, 『일본의 도시괴담』 (서울, 다른 세상, 2002), 30쪽.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조복(朝服)과 조관(朝冠)을 입은, 한 장부가 집 뒤편에서 나타났다. 장부는 대여섯의 잡귀(雜鬼)들과 개 두 마리를 거느리고 집을 몇 바퀴나 둘러보면서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한참 뒤에야 장부가 자리를 떴다. 그러자 잡귀들은 대청 아래로 들어가고 개들은 대청 위로 올라가 양 모퉁이에서 서로 마주 보며 었드렸다.

① 그들은 이튿날 대청마루 아래서 망가진 키(破箕)와 닳아빠진 빗자루 두세 개, 그리고 집 뒤편에서 닳은 빗자루 하나를 찾아내어 모두 태워 버렸다. 그 날도 밤이 깊어지자, 조복과 조관을 한 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대여섯의 잡귀들과 같이 다시 그 집을 빙 둘러서 살피고는 한참 만에 흩어져 나왔던 곳으로 들어갔다. 전날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들은 이 집을 버리고 달아났다.

② 이 창(窓)의 얘기를 들은 어떤 사람이 그의 형인 휴(庠)와 해(廈)에게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해 보았더니, 모두 “그렇다.”고 하였다.

(3) 어떤 선비가 집이 없어 목사동 흥가에 들어가 묵게 되었다. 그는 다락의 물건이 나쁜 빌미가 된다고 하여, 그 안에 있던 신주(神主)와 빈궤(櫃), 무현금(無絃琴), 해진 신과 오래 전에 깎은 나무판 따위를 가져다가 마당에 놓고 태워 버렸다. 불길이 아직 솟기도 전에 한 계집종이 갑자기 땅바닥에 엎어지더니, 구궤(九竅: 사람의 몸에 있는 아홉 구멍)에서 피를 토하며 죽었다. 선비는 소스라치게 놀라 급히 불을 끄고 물건을 다시 다락으로 올려다 놓고는 결국 그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다.<sup>34)</sup>

(밑줄은 필자가 그은 것임.)

이것은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서 생존했던 임방(任墜: 1640-1724)이 저술한 『천예록(天倪錄)』에 실려 있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에 <이수재가 빈집을 빌렸다가 괴변을 당하다(李秀才借宅見怪)>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것으로, (1)과 (2)의 이야기는 이창(李廡)이란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준 것을 임방이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3)은 (1)에 나온 목수동 흥가에 얽힌, 또 다른 이야기인데, 이 밖에도 “푸른 치마를 입은 여자 귀신이 다락에서

34) 임방, 정환국 역, 『천예록(天倪錄)』 (서울, 성균관대 출판부, 2005), 269-272쪽에서 요약.

방으로 내려와 해괴한 짓을 벌였다.”<sup>35)</sup>는 이야기가 함께 실려 있다.

임방이 이렇게 자기 주변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므로 위의 자료는 조선시대 당시의 이야기, 곧 야담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sup>36)</sup> 특히 임방은 밑줄 친 ②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이 창외 형제에게 이런 일이 사실이었는가를 확인까지 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 이 이야기의 사실성을 더 해주고 있다. 따라서 19세기에 이희평(李羲平)이 편찬한 『계서야담(溪西野談)』의 서문에서는 “야담이란 보고들은 대로 적은 것”<sup>37)</sup>이라고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추정은 매우 타당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위의 이야기에서 당시의 조선시대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즉 흉가(凶家)에는 귀신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밑줄 친 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졌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인식은 일본에도 남아있어 주목을 끈다. 일본에는 <쓰쿠모 신앙(九十九信仰)>이라고 하여, 오래된 도구에는 특별한 영혼의 힘, 곧 영력(靈力)이 깃들어 있다든지 영혼이 붙어 있다고 신앙이 있다.<sup>38)</sup>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신앙의 단계까지는 전전되지 못하였고 속신(俗信)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이러한 믿음이 신앙의 단계로 진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한일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민속문화의

35) 임방, 정환국 역, 앞의 책, 272쪽.

36) 따라서 야담은 오늘날의 현대담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조선시대 당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 고찰의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을 밝혀둔다.

37) 『野譚者 隨其見聞而記錄也.』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편, 『韓國文獻說話全集(1)』(서울, 태학사, 1981), 3쪽.

38) 宮田登, 앞의 책, 39-40쪽.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환언하면 일본에서는 아주 사소한 현상이라도 그것을 체계화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틀이 잡힌 현상만을 체계화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귀신들 가운데에는 이처럼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간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도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자료 7]

「옛날에 구좌면(舊左面) 행원리(杏源里)의 어떤 어부가 고기가 안 잡히자, 도깨비를 모실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그는 도깨비를 모셔 한 밀천 마련하기만 하면, 도깨비를 쫓아내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왜냐하면 도깨비는 잘 모시면 부자가 되게 해주지만, 약간 방심을 하면 집안을 망하게 해주기도 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어부는 도깨비를 모시러 나섰다. 깊은 밤중에 도깨비가 잘 나타나는 곳에 가서, “영감이 나를 부자가 되게 해준다면, 수수범벅을 해주지.”라고 언약을 하면서, 수수범벅을 올렸다.

그랬더니 그 후에 의외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래서 항상 수수범벅을 해 가지고 가서 여기에 올리고, 재수가 있게 해달라고 빌었다. 어부는 연일 고기를 많이 잡아서 날로 부자가 되어갔다. 이렇게 하여 돈이 모이자, 도깨비 힘을 빌리지 않기로 하고 수수범벅 올리는 것을 중지했다.

그러자 어부의 꿈에 도깨비가 나타나, “나는 너를 도와주었는데, 어찌하여 수수범벅을 올리지 않느냐?”고 하였다. 그는 이때야말로 도깨비를 딱 끊어놓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이튿날 어부는 버드나무 막대기를 들고 도깨비가 나오는 언덕으로 가서, “이놈, 너 왜 간밤에 우리 집에 왔다갔느냐. 다시 출입을 하면 살려두지 않겠다.”고 큰소리로 나무랐다. 그러고는 “이놈, 똥이나 먹어라.”라고 하며, 똥을 누어놓고 돌아왔다. 집에 와보니, 집 네 귀퉁이에는 불이 별정계 타오르고 있었다. 이 불은 도깨비가 붙여놓은 것이었다.<sup>39)</sup>

39)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울, 서문당, 1976), 283-284쪽.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도깨비는 한국의 독특한 귀신의 하나이다. 이것은 일본의 요괴(妖怪)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가까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sup>40)</sup> 이런 도깨비가 등장하는 이 자료에서는 처음에는 그것이 어부(漁夫)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그려진다. 하지만 도깨비 때문에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수범벅을 해주기로 한, 처음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 뿐만이 아니라, 버드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도깨비에게 위협까지 하였다.

여기에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도깨비가 아니다. 다음에 드는 자료 8에서와 같이 사람들에게 속히는, 해학적인 것도 있지만, 귀신들은 인간들의 약속 위반에 보복을 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 이야기에 있어서도 도깨비는 자신이 주었던 부(富)를 도로 빼앗아가는 양갓음을 한다. 다시 말해 도깨비는 어부의 집에 불을 붙여서, 모든 것을 잣더미로 만드는 보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도깨비들 중에는 이처럼 철저하게 보복을 하는 것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 흥미를 자아낸다.

[자료 8]

「도깨비가 갖다 준 돈은 다른 살림을 장만하면 안 된다. 언제 빼앗기든지, 도깨비가 빼앗아 간다고 한다. 곧 조금만 잘못하면 도깨비가 도로 빼앗아 가는 법이다. 그러니까 땅을 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도깨비들이 우리가 준 돈으로 땅을 샀으니 땅을 빼앗아 간다고 한다. 말이 네 귀에 말뚝을 받고 떠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땅을 떠갈 수는 없으니까 땅을 사야 한다는 것이다.」<sup>41)</sup>

40) 한국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요괴(妖怪)>의 개념은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다. 그런데 일본어의 <오바케(お化け)>를 사전에서는 <도깨비>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이것은 도깨비가 아니라 <변신을 한 귀물(鬼物), 요괴>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도깨비는 한국에서 생성된 독특한 귀신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한다.

41) 지춘상, 『한국구비문학대계(6-2)』(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787쪽.

한국에는 도깨비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있다가도 별안간에 없어지는 불안정한 살림살이를 뜻하는 속담으로, “도깨비 살림 같다.”라는 말이 있듯이, 도깨비가 준 것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사 두면 도깨비가 가져갈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자료를 보면, 한국의 도깨비가 양면성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곧 행운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불행을 가져다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도깨비는 민간에서 만들어진 매우 유머러스한 귀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도깨비는 일본의 집이나 집터에 연루된 요괴와는 구별된다고 하겠다.

한편 한국에서 집과 연루된 신으로 <업>이란 것이 있다. 그래서 업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하기로 한다.

[자료 9]

「제보자가 고향에 있던, 어린 시절에는 집안 형편이 넉넉했다. 마침 큰오빠가 구옥(舊屋)을 뜯고 개축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예로부터 집은 함부로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쟁이에게 가서 물어보았더니, 개축은 물론 집 공사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고집이 센 제보자의 큰오빠는 점쟁이의 말은 말할 것도 없이 다른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개축을 시작했다. 삼으로 집의 마당을 파는데, 커다란 구렁이가 몸을 감고 좌정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면서 아무래도 심상치 않으니, 공사를 그만두고 봤던 땅을 그대로 덮자고 하였다. 그렇지만 제보자의 오빠는 구렁이를 몽둥이로 때려 쫓아내고, 공사를 계속했다.

그렇게 하여 집을 새로 짓기는 했으나, 그 후 오빠는 병이 나서 십수 년째 환자로 있다. 또 집안도 점차 기울어 이사를 해야 했고, 제보자도 고향을 떠나 객지생활을 하게 되었다.

나중에 어디에 가서 물으니, 업구렁이가 이웃집으로 갔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이웃집은 원래 살림이 넉넉하지 못했는데, 이 일이 있

은 다음부터 재산이 불기 시작하여, 요즈음에는 과수원을 하는 등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sup>42)</sup>

이것은 한국에서 널리 신앙되고 있는 <업신(神)>에 대한 이야기이다. <업신>은 구렁이의 형태로 집안의 어딘가에 숨어서 그 집을 지켜주는 신으로 신봉되고 있다.<sup>43)</sup>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인다는 것은, 업신이 그 집을 지켜주지 않고 어디론가 가겠다는 전조(前兆)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집에는 보살펴주는 신이 없어지게 되어,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것이 출현하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인들의 신앙의 한 단면이 이야기되고 있는 위의 자료를 보면, 한국의 <업신> 신앙이 일본의 <집터의 수호신> 신앙과는 다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두 나라의 기층문화에는 구별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집터 동자(座敷童子)>는 아무 집이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부잣집에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장난을 거는 경우도 있는 사람 모양의 신(人態神)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업>은 반드시 부잣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집에도 있으며, 그 구렁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장난을 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이라는 차이가 있다.

42) 이 자료는 김명자가 1981년 7월에 서울에 거주하는 김계순(당시 25세, 충북이 고향)으로부터 조사한 것임을 밝혀둔다.

김명자, 「업신고(神考)(1)」 『문화인류학논총』 (대구, 논총간행위원회, 1989), 406쪽.

43) 김명자(金明子)는 이러한 업신으로 구렁이업과 족제비업, 인(人)업으로 3분한 바 있다.

김명자, 앞의 논문, 405-412쪽.

## IV.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현대담들 가운데에서 요괴와 귀신, 그 가운데에서도 일본의 요괴에 대응되는 한국의 도깨비에 연루된 몇 개의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민속문화 속에는 비슷한 것들도 있지만, 다른 면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들을 간단히 정리하여, 결론에 가름하기로 한다.

첫째 학교의 화장실에 귀신이 나타난다고 하는 모티프의 이야기는 한국과 일본에 다 같이 전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은 화장실이란 것이 건물에서 떨어져 있어, 비밀상적인 세계로 인식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리고 초창기에 학교가 세워진 곳이 대개 인가에서 얼마간 떨어진 곳이었다는 데 착안하여, 인간의 문화가 미치지 않는 자연에 가까운 곳이었으므로, 요괴나 귀신과 같은 존재가 출현하는 괴담들이 창출되었다는 추정을 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은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의 관심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야기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런 근거로 1970년대 말에 만들어진 일본의 <입이 찢어진 여자 이야기>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대신에 한국에서는 <참새 시리즈>를 비롯하여 <식인종 시리즈>, <사오정 시리즈>, <최불암 시리즈> 등이 유행하였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일본의 민속문화에서는 비밀상적인 공간이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공간은 지하의 세계에 존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밝혔다.

셋째 집에 얽힌 귀신이나 요괴 이야기는 한국과 일본이 다 같이 근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한국과 일본이 조선 시대와 에도 시대에 이미 이런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두 나라의 이야기들은 얼마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곧 일본의 이야기에는 우물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되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강이나 연못이 그 경계가 되었다는 신화적 사유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이야기에는 다 같이 집안의 물건이 오래 되면, 거기에 영혼이 깃들게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한국에서는 신앙의 단계로까지 진전되지 못하였는데 비해, 일본에서는 <쓰쿠모 신앙>으로 진전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두 나라의 민속 문화가 가지는 본질적인 차이의 한 단면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넷째 한국의 도깨비와 일본의 요괴는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냈다. 특히 한국의 도깨비가 인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기도 하고, 또 불행을 가져다주기도 하는 특이한 존재이다. 이에 비해, 일본의 요괴는 그러한 성격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민속문화가 보다 해학적인 측면을 좋아하는 단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다섯째 한국의 <업신>에 대한 신앙에는 일본의 집터를 지키는 신에 대한 신앙과는 다른 측면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차이는 두 나라의 기층문화에는 서로 구별되는 특수한 요소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였다.

이와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연구를 진척시켜 나아간다면 한국과 일본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지금도 우리는 서로간에 가깝고도 먼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상대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측면에서 상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이런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둔다.



주제어(Key words): 현대담(現代譚)(Modern talks),  
세간화(世間話)(Talks in the mundane world),  
괴담(怪談)(Monster story), 구비문학(Oral literature),  
요괴(妖怪)(Monsger), 귀신(Ghost), 화장실(Bathroom),  
집터 동자(童子)(Child ghost for a house site),  
업신(Ghost for a household mascot),  
천예록(天倪錄)(Chunyerok), 계서야담(Gyeseoyadam),  
쓰쿠모 신앙(Sukumo religious belief), 도깨비(Goblin)

### 참고문헌

- 김종대, 『도깨비의 세계』, 국학자료원, 1994.  
\_\_\_\_\_, 『한국의 학교괴담』, 다른 세상, 2002.  
김명자, 「업신고(神考)(1)」 『문화인류학논총』, 논총간행위원회, 1989, 403-421쪽.  
김화경, 「세경 본풀이의 신화학적 고찰」 『한국학보』 23집, 일지사, 1982, 56-78쪽.  
\_\_\_\_\_, 「학술답사보고서」 『국어국문학연구』 23집,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5, 174-176쪽.  
\_\_\_\_\_, 「야담의 장르적 성격에 관한 고찰」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1)』, 보고서, 2001, 206-224쪽.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편, 『韓國文獻說話全集(1)』, 태학사, 1981.  
손진태, 『조선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7.  
신동훈, 「현대 구비문학과 전파매체」 『구비문학연구』 3집, 한국구비문학회, 1996, 143-175쪽.  
\_\_\_\_\_, 「경험담의 문학적 성격에 대한 고찰」 『구비문학연구』 4집, 한국구비문학회, 1997, 157-182쪽.  
\_\_\_\_\_, 「PC통신 유머방을 통해 본 현대 이야기 문화의 단면」 『민족문학사연구』 13집, 민족문학사연구소, 1998, 389-428쪽.  
지춘상, 『한국구비문학대계 6-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한국어사전편찬위원회, 『한국어대사전』, 현문사, 1976.
-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 \_\_\_\_\_,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77.
- 임방. 정환국 역, 『천예록(天倪錄)』, 성균관대 출판부, 2005.
- 常光徹, 이현정 역, 『일본의 도시괴담』, 다른 세상, 2002.
- 久保孝夫, 『女高生が語る不思議な話』, 五所川原, 青森縣文藝協會出版部, 1997.
- 宮田登, 『都市民俗學の課題』, 東京, 未來社, 1982.
- \_\_\_\_\_, 『妖怪の民俗學』, 東京, 岩波書店, 1985.
- \_\_\_\_\_, 「世間話研究の意義」 『民話の世界』, 東京, 有精堂, 1990, 178-189쪽.
- 金和經, 「韓·日世間話의 比較研究」 『歴史と民俗(15)』, 東京, 平凡社, 1999, 69-106쪽.
- 大塚民俗學會 編, 『日本民俗事典』, 東京, 弘文堂, 1972.
- 島村恭則, 「都市傳説の日·韓比較」 『比較民俗學研究(12)』, 筑波, 筑波大學 歴史人類學研究科, 1995, 143-157쪽.
- \_\_\_\_\_, 「現代韓國社會と世間話」 <日本民俗學會發表要旨>, 東京, 日本民俗學會, 1996, 1-12쪽.
- 山崎雅子, 『日本昔話事典』, 東京, 弘文堂, 1977.
- 森川清人, 『朝鮮の野談隨筆·傳説』, 서울, 로-칼社, 1944.
- 常光徹, 『學校の怪談』, 東京, ミネルブァ書房, 1994.
- 新村出 編, 『廣辭苑』, 東京, 岩波書店, 1981.
- 野村純一, 『日本の世間話』, 東京, 東京書籍, 1995.
- S. Thompson, *The Folktale*, New York, The Dryden Press, 1946. 415쪽.

## A Comparative Study on Modern Tales of Korea and Japan

Kim, Hwa-Kyong

This paper purports to analyze stories or talks about Korean and Japanese ghosts and monsters made in modern times, then compare the stories in terms of difference and sameness between the two countries' folklore. One reason to examine such talks is that there have yet been many studies regarding interest in modern talks about ghosts and monsters of Korean oral folklore. Another reason is that the comparison of such folkloric talks between Korea and Japan would contribute to helping to understand each other.

It is proved in the paper that folklore(s) of Korea and Japan contain not only things in common but elements differentiated from each other. For instance, as a same feature, both countries' folklore suggests the existence of a world different from our daily world. As different features, Korean folklore indicates such a world to exist underground while the Japanese seem to believe it to exist in this real world.

There will be a possibility to extend our understanding toward to each other, Korea and Japan, if we pursue further studies on folkloric talks between Korea and Japan with respect to their difference and sameness. Two countries have been recognizing each other as a country so near and yet so far. This is because one hasn't tried to understand the other's culture, but rather look at the other from one's own side or point of view. Consequently, in order to overcome such a problem or misunderstanding, studies like this paper must be practiced more.

김화경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주소: 경북 경산시 대동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016-9812-2222

전자우편: mythos103@nate.com

이 논문은	2007년 4월 30일	투고하여
	2007년 6월 2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7년 6월 30일	간행함